



시속 350km 짜릿함이 온다... 미리 가본 영암 서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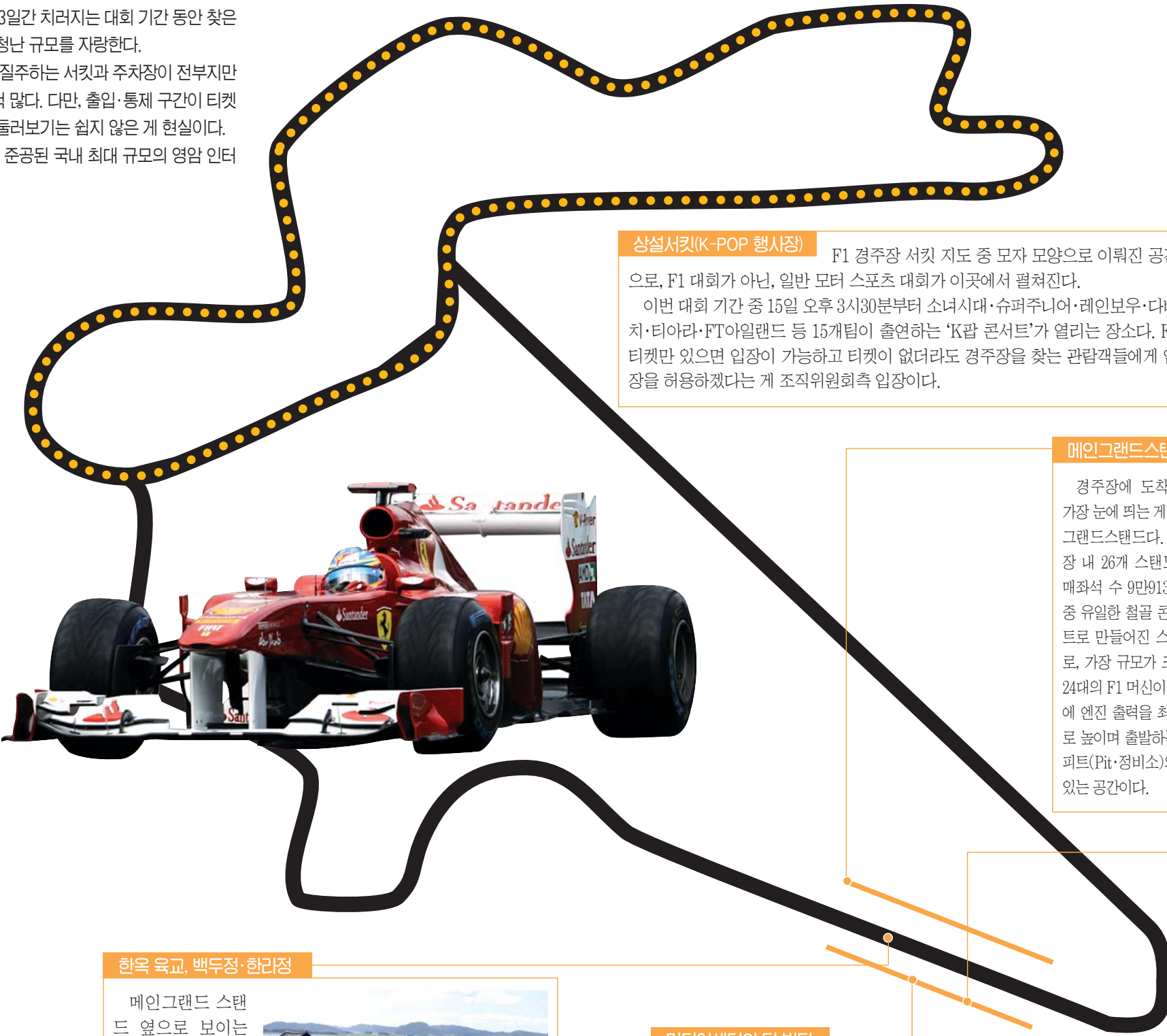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장은 규모만으로(37개 동 3만9000㎡) 지역 랜드마크로 불릴 만하다. 지난해만 해도 3일간 치러지는 대회 기간 동안 찾는 관람객이 16만5000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은 차량이 질주하는 서킷과 주차장이 전부지만 경주장 내에서는 흥미로운 볼거리가 무척 많다. 다만, 출입·통제 구간이 티켓 하나만 가지고 경주장 이곳저곳을 모두 둘러보는 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미준공 시설'이라는 오명을 벗고 최근 준공된 국내 최대 규모의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을 둘러보자.

■ F1 티켓으로 가는 무료관광지(9.30~10.31)

지역	관광지
목포	근대역사관 자연사박물관, 생활도자박물관, 문예역사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영산호농업박물관 영산강 황포돛배
순천	낙안읍성민속마을 드라마촬영장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자연휴양림
나주	영상테마파크 영산강 황포돛배
담양	죽녹원·죽향문화체험마을 소쇄원 한국대나무박물관 한국가사박물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고흥	천문과학관
보성	한국차박물관 태백산맥문화관 대한다원(보성 녹차밭)
장흥	우드랜드
강진	고려청자도요지 청자박물관 청자보물선
해남	우항리 공룡화석지 우수영관광지 땅끝전망대 도기문화센터 기찬랜드
영암	왕인박사유적지 도감사
무안	회산백련지 무안생태갯벌센터
함평	엑스포공원
완도	완도타워 신라방세트장 장보고 기념관 수목원
진도	운림산방
신안	중도 갯벌생태전시관



상설서킷(K-POP 행사장)
F1 경주장 서킷 지도 중 모자 모양으로 이뤄진 공간으로, F1 대회가 아닌, 일반 모터 스포츠 대회가 이곳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 기간 중 15일 오후 3시30분부터 소녀시대·슈퍼주니어·레인보우·다비치·티아라·FT아일랜드 등 15개팀이 출연하는 'K팝 콘서트'가 열리는 장소다. F1 티켓만 있으면 입장이 가능하고 티켓이 없더라도 경주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입장을 허용하겠다는 게 조직위원회측 입장이다.



메인그랜드스탠드, 1만6116석
경주장에 도착하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메인 그랜드스탠드다. 경주장 내 26개 스탠드(관객석 수 9만9136석) 중 유일한 철골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스탠드로, 가장 규모가 크다. 24대의 F1 머신이 동시에 엔진 출력을 최고조로 높이며 출발하는 스타트 라인과 타이어를 갈아끼우고 머신을 정비하는 피트(Pit·정비소)와 정비요원들, 대회 1~3위의 시상장면까지 직접 볼 수 있는 공간이다.



패독(Paddock) 클럽과 피트(Pit·차량정비소)
'F1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불리는 공간이 패독클럽으로, F1 경기 관전을 활용해 글로벌 경영활동 등을 펼치는 VIP들의 F1 경기장 내 비밀 사교공간이다. 피트 위 2층에 마련돼 있으며 미디어의 사진 촬영도 금지되는 구역이다. 톰 크루즈와 베컴 등 해외 유명스타 등도 이곳에서 고급 요리를 즐기며 경기를 관람한다. 이번 대회에서도 국내의 최고 VIP 100명이 토·일요일에 각각 초청받는다. 패독클럽은 모두 5개가 운영되며 한 개 클럽(가로 40.5m·세로 23m)당 300명이 들어갈 수 있다. 3일간의 대회 기간 중 F1 머신의 정비 공간인 피트를 둘러보는 '피트라인 워크' 행사나 팀 관계자의 브리핑도 이들에게만 부여되는 특전이다. 피트는 경기 기간 중 머신의 정비 및 타이어 교체가 이뤄지는 장소로, 수십명의 정비요원들이 4초 안에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장면이 펼쳐진다.



한옥 육교, 백두정·한라정
메인그랜드 스탠드 옆으로 보이는 한옥 육교(길이 83m·폭 10m)와 태극기는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상징물이다. 메인그랜드스탠드 쪽에 위치한 정자가 백두정, 반대쪽이 '한라정'이다. 대회 기간 중 미디어들이 꼽는 최고의 사진 촬영 장소다. 물론, 일반 관람객들의 출입은 제한된다. 한옥 육교 전면에 설치된 태극기는 버니 에클레스턴(Bernie Ecclestone) F1 매니저(FOM) 회장이 직접 제안해 설치됐다. 상업성을 추구하는 대회 성격상 전세계 미디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위치 탓에 엄청난 광고비를 지불해야 하지만 '국가 대항전'의 의미를 부여해 가능해졌다.



미디어센터와 팀 빌딩
메인그랜드스탠드에서 보이는 피트 뒤편으로 위치한 팀 빌딩은 각 팀의 드라이버 뿐만 아니라 각 팀 엔지니어 등 대회 관계자들이 대회 기간 중 사용하는 공간이다. 14일부터 3일간 페라리, 레드불, 윌리엄스 등 각 팀에서는 미디어를 대상으로 다양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간담회를 갖는다. 미디어센터는 국내외 기자 500명(사진기자 포함)이 사용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http://bike.kjmedia.co.kr>

자전거와 함께 농촌사랑을

2011 Green **자전거축제**

2011년 11월 5일(토)~6일(일)
광주상무시민공원

종 목 | 거북이자전거행진(비경쟁 4.5km), 로드레이싱(경쟁 50km)

주 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사

주 관 | 광주광역시 사이클연맹,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자전거연합회

후 원 | 농림수산식품부 KFA 한국마사회

교통지원 | 광주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광주광안경찰서, 나주경찰서

문의 | 062-220-0541, <http://bike.kjmedia.co.kr> 게시판

거북이자전거행진

- 일 시 : 2011년 11월 5일(토) 오후 3시 출발, 오후 4시 30분 종료
- 집 결 : 광주상무공원 (출발, 끝까지점 동일) 오후 2시까지 출발선 대기
- 코스 : 비경쟁 퍼레이드 4.5km
출발(광주상무시민공원) - 광주광역시청 - KBS방송국 - 상무병원삼거리 - 여성발전센터 - 서부경찰서 - 상무시민공원 도착 (※제한시간 : 오후 4시 30분까지)
- 참가비 : 무료(10월 20일까지 홈페이지 참가신청 마감)
- 지급품 : 참가기념품(후추 공지), 배번호(현장배부)
- 비경쟁 퍼레이드 행사입니다. 순위 및 기록결정은 없습니다.
- 시상내역
(1)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드립니다.
(2) 특별상(행운상, 포토제닉상)

로드레이싱대회

- 일 시 : 2011년 11월 6일(일) 오전 8시 30분 출발
- 집 결 : 광주상무공원 (출발, 끝까지점 동일) 오전 7시 30분까지 출발선 대기
- 코스 : 경쟁 50km (별첨지도 참고)
출발(광주상무시민공원) - 동신대앞교차로(우) - 대신삼거리(우) - 평동역 - 서교동 - 도차 (광주상무시민공원) ※제한시간 : 2시간 30분 (11시 주종 종료)
- 참가비 : 1인당 30,000원
- 광주·전남 외 참가 단체팀(10명 이상)에게는 팀당 여비 10만원 지급
- 지급품 : 참가기념품(후추 공지), 중식, 간식, 배번호(2개1조), 기록측정침 - 배번호 및 기록측정침은 사전에 배송해 드립니다.
- 기록측정 : 기록 측정용 칩 사용
- 순위 및 공식기록은 넷타임(기록침)으로 결정, 공지
- 시상내역
(1) 개인(연령대별 구분 각 부문 시상, 상금+상장+트로피)
• 남자4개 부문 : 1위(50만원), 2위(30만원), 3위(20만원), 4위(10만원), 5위(5만원)
• 여자2개 부문 : 1위(30만원), 2위(20만원), 3위(10만원), 4위(5만원), 5위(5만원)
(2) 단체
• 참가단체상 : 다수참가팀 순으로 5팀, 팀당 10만원
• 원거리참가단체 여비지원 : 10명 이상 팀 (광주·전남 외 지역, 팀당 10만원)
(3) 특별상(행운상, 포토제닉상)

농촌사랑축제

- 일 시 : 2011년 11월 5일(토) ~ 6일(일) 이틀간
- 장 소 : 광주상무시민공원
- 내용 : • 농·축·수산물 홍보관 운영
• 기타 다양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현장에서 푸짐한 행운상, 이벤트상을 드립니다.)